



동우컴퍼니

핸드폰(cellphone)

인류 최대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핸드폰이다. 핸드폰의 발명으로 우리는 손쉽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었고, 많은 업무가 손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편리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명물이다.

핸드폰은 영어로는 셀폰(cellphone)이다. ‘cell’은 ‘세포’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감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cellphone-감옥 전화기’,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듯하다. 다들 공감할 것이다.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는 사실을. 여행나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핸드폰을 깜빡하여 집에 놓고 나오면 어떨까. 그야말로 불안해서 약속시간에 좀 늦더라도 다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챙긴다. 더욱 심하게는 잠시라도 핸드폰을 안 보면 불안해하는 핸드폰 중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다. 또 핸드폰 게임중독으로 인한 병폐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다 핸드폰 중독이다. 다 핸드폰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정말 cellphone이 cell인 셈이다. 편하라고, 자유하라고 핸드폰이 주어졌건만 그것에 구속되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율법을 주셨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갇혀 살며 율법에 비추어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다.

또 신종 바리새인들,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형식과 전통에 갇혀 말씀의 본질을 잊고 사는 사람들, 말씀 안에 살라는 것이 감옥 같이 느껴진다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하나님 말씀에 자유하려면 나를 다스려 그 안에 복종하면 된다. 핸드폰에 자유하려면 나를 다스려 절제하면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자유가 있다.

역설적 발상 같지만, 자유는 나를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는 12월 22일은 목사님의 성역 35주년 기념일이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약 30여년을 가까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목사님은 정말 꿈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그러기에 쉴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군가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고 했었지만, 목사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며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 쉴 수 없는 시간들로 35년을 달려오셨다. 그리고 여전히 넘치는 그 꿈들을 이루시기 위해 30년을 잘라버리고 다시 뛰시는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주 인천교회 주일예배를 통하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준비와 점검을 강조하셨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충’이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 인

까지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철저히 성공할 것이요, 대충 준비하면 반드시 누수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외집회를 위해 가끔 경유하는 두바이를 찾아 그 유명한 120층 빌딩이 세워질 때부터 6번이나 가서 보았습니다. 그 높은 빌딩이 세워지기 위해 지하공사를 얼마나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지 보았습니다. 그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120층이 올라가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준비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가 매
사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습니다. 준비와 점검은 때려야 땔 수 없

러한 자세를 늘 견지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로도 그럴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때 미래에 닥칠 7년의 대흉작을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요14:1). 매사 철저히 준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없습니다. 겨울이 와도 월동준비를 마친 사람은 편안합니다.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면 북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굳건한 안보 위에 건설한 경제건설로 국력이 신장되면 중국도, 일



기도원 호텔건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자!

생을 좀 먹는 가장 무서운 군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안이한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자세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이것이야 왜!’라는 정신으로 명작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밤이 맞도록 고치고 또 고치며 지지고 볶습니다. 나는 힘겨운 과정보다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성취와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과정이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 준비 없이 어찌 큰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매사 철저히 준비합니다. 하다 못해 먼 길을 떠날 때면 차 안에 소변통

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집회를 위해 준비할 때도 수시로 점검회의를 했고, 공연팀의 리허설을 몇 차례 가지며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성회 전날 밤늦게까지, 또 성회 당일 오전에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성회 당일 그 아름다운 공연은 절대로 거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원 호텔을 짓는다고 선포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하게 시작하진 않습니다. 승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재원이나 자재가 준비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 기도원 호텔을 지을 때도 그러했고, 2005년 인천교회를 지을 때도 나는 이

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결코 우리를 얹
볼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매사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않습니다. 후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매사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며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행20:24). 할렐루야!”

준비와 점검, 오늘 이 두 단어만 마음판에 새겨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꿈이 있는 자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노력하며 준비하라!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극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2:14~16)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

목회 초기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시들시들한 채소 위에 손을 내미니 채소들이 살아나 싱싱해졌고, 제가 사람들의 머리를 향하여 용접봉을 대니 죽 처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성령세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죽었던 그들의 영·혼·육이 푸릇푸릇 살아남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제게 주셨던 꿈을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만나고 나면 새 힘을 얻고 소망과 의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세상 말로 말빨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리는 영, 곧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의 위력은 칼의 위력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고전15:45~46).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의 영·혼·육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인 예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살리는 영인 예수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면 심신이 지쳐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좌절했던 자가 용기를 갖고, 의기소침한 자의 기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마12:20).

반대로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히2:14).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죽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가는 사람을 주저앉히고, 풍선을 바늘로 찔러 터트리는 것처럼 희망에 들뜬 사람을 좌절시키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혼한 주제에 뭘 해?”, “그 자본금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야? 요즘 웬만한 것 가지고는 안 돼.”, “그 나이에는 늦었어.” 이러면서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맞을까요? 예수는 살리는 영인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남을 살리는 자인지, 남을 죽이는 자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말이 어떤지를 살피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사랑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지, 아니면 좌절과 고통과 낙심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영을 받은 자는 말이 다릅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지요? 맞습니다. “재는 공부도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재는 공부도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만 내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전자는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인물이 없다’라든지,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더럽다’라든지 뭔가 꼬이고 죽이는 말투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살리는 말이요, 온전한 칭찬이 아닙니까?

말을 잘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내가 살지만,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내가 죽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중 열 명의 정탐꾼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다 메뚜기 같다’(민13:32)고 보고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모진 고생

을 근근이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 주저앉게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인 가나안이란 줄을 싹둑 잘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대성통곡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민14:9). 그래서 결국을 볼까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한 자들과 그 말에 동조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나는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민14:30).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발을 잘못 붙어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나발은 유다 광야 도시 마온에 살던 갈렙 집안사람으로, 양을 비롯한 수많은 가축 떼를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는 양털 깎는 축제 때에 부하를 시켜 식량 원조를 요구한 다윗을 모욕하고 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25:10~11). 나발은 다윗을 사물을 배반한 건달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노하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보복하러 가던 중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몰래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대노한 다윗에게 “내 남편은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에게 패념치 마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니 그 때에 무오하셔야 하오니 칼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다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여종을 생각하옵소서.”(삼상25:24~31)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노를 거두었고, 이 모든 사실을 안 나발은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쓰러진 뒤 10일 후 사망했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송아지는 염마소를 닮는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내가 살지만,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성한 일,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사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말을 잘한 사람, 말을 잘해서 최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매달렸지만, 하나는 낙원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말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랄한 죄를 지은 것은 둘이 똑같지만,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비아냥거렸고, 한 사람은 그런 그를 야단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영생을 좌우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말의 근원이 맑아야 합니다. 근원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쓴 말이 나오는 말의 근원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왕하2:21). 그래야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남을 살리는 말, 복된 말, 기쁨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넘치게 되면 그 말이 닿은 곳에 사람들이 소생함을 얻고, 변성함을 얻고, 실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겔47:8~13).

“이혼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야. 좋은 경험을 한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배필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비록 지금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 이렇게 말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시들시들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어집니다. 절망 대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잘 사는 법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후6:10)는 성경구절을 오해하여 돈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15번, ‘구원’이라는 단어가 218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돈’이나 ‘재정’과 관련한 구절은 무려 2,084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최악이지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해악도 있지만 잘만 사용하면 돈보다 더 충성된 하인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 궁핍한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름이나 절망, 심한 경우에는 자살하는 일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돈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빚을 저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22:7). 빚을 지게 되면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번 것보다 많이 쓰면 언젠가는 알거지가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지만, 번 것보다 적게 쓰고 모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산이 증식되고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충동구매를 자제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드사용보다는 직불(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보면 한국이 89%, 중국이 60%, 일본은 불과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40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며, GDP대비 부채비율은 97.7%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빚지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사치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치란 자신의 수입도 생각하지 않고 분수에 맞지 않는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 입지도 않는 옷과 신발이나 가방을 싸다고 마구 잡이로 구매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볼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평생 돈 한 톨도 못 모을 것입니다. 국가나 기관들이 미리 예산을 책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지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저금부터 하고 남은 돈을 쓰는 것이 부요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돈 버는 것 자랑하지 말고 쓰는 것 자랑하라.’는 옛 선전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 To Be Succeeded ::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독일의 어느 노 교수님이 한 목사님께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한 방을 썼던 유대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질 즈음엔 꼭 히브리말로 소리 높여 시를 암송하곤 하는 친구에게 교수님이 물으니, 성경에 있는 시편 23편인데 이걸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느껴진다며 교수님한테도 가르쳐주더라. 그 유대인 친구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결국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다. 놀랍게도 끌려가는 차 안에서 친구는 평안한 얼굴로 싱긋 웃더니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라.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수님은 눈물을 참으며 친구와 한 목소리로 마지막 구절까지 암송했다.

그렇게 친구를 보낸 교수님도 독일군에 강제 징용되고, 결국 연합군에 잡혀 총살을 당할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집행관과 많은 연합군 간부들 앞에서 교수님은 친구와 함께 외웠던 시편 23편 말씀을 히브리말로 조용히 읊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은 교수님의 음성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한 연합군 사령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수님의 수갑을 풀어주고 사형집행 정지 서류에 사인했다. 그 사령관은 유대인이었다. 그가 적군인 교수님을 살려준 이유는 단 하나, 교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 때문이었다. 죽더라도 독일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자 했던 교수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다. 다행은 외로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여전히 나의 길을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힘 있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도, 다함도 없으시다. 인생의 희로애락의 여정은 결국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됨에 따라 심령 깊숙이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향하시는 귀하고 값진 삶의 예배이고,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성도의 발자국이며 축복이다.

이국진 사모

우공이산

중국 복산에 사는 우공이라는 노인은 집 앞에 태행산과 왕복산이 막고 있어서 생활이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가족이 힘을 합쳐서 두 산을 옮기자고 했고, 다음 날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우공과 아들, 손자가 지게를 지고 흙을 바다에 갖다버리고 돌아오는데 1년이 걸렸다. 이웃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자 우공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계속할 것이라고, 산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두 산을 지키던 산신이 자신들이 살 자리가 없어질까 겁이 나서 옥황상제에게 말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옥황상제는 우공의 정성에 감동하여 두 산을 들어 옮겨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웅남에 두게 하였다고 한다.

2011년에 일본의 산리쿠 해안가의 마을에서 14m 규모의 쓰나미가 덮쳤지만

높이 15.5m에 이르는 방조제 덕분에 마을 사람 전부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촌장이 옛날에 15m 높이의 쓰나미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산낭비는 주민의 지적에도 돈을 들여서 15m 이상의 방조제를 건설했다. 그 결과 다른 주변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이 많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쓰나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우공과 촌장은 처음부터 단기간에 무언가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단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마17:20).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짙은 티끌 큰 믿음의 나무가 될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김성일 집사



:: 삶이 있는 이야기 ::

플라스틱을 먹는 새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플라스틱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플라스틱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둥둥 떠다니다가 해류를 따라 대양의 한곳에 모여 거대한 쓰레기 섬을 이룬다. 근처의 한 섬엔 해마다 철새들이 모여들어 알을 낳고 부화시켜 새끼를 키우는데, 안타깝게도 어미 새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 먹이인 줄 알고 열심히 물어 나른다. 새끼들은 쉬지 않고 입을 벌려 그것을 받아 먹는다. 시간이 흘러 철새들이 떠난 해안가엔 죽은 새끼 새들의 흔적이 즐비하고, 그 자리엔 새의 배를 가득 채우고 있던 플라스틱 조각들이 한 움큼 남아있다. 비극의 현장이다.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바다도,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은 새끼의 모습도 참담하지만, 그것이 플라스틱인 줄도 모르고 새끼를 위해 열심히 물어다 먹인 어미 새가 가장 애잔하다. 그의 헛된 노력이 새끼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세상은 더 이상 무얼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청정 지역이 아니다. 플라스틱들이 둥둥 떠 있는 바다처럼 무엇이 진짜 먹이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세상이다. 신

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난다. 어떤 이들은 성경 그대로 전하면 곧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적당히 섞어 전하려고 한다. 말씀을 곡해하거나 말씀에 자기를 슬쩍 얹어서 가르치기도 하며, 자기 구미에 맞게 빼거나 더하기도 한다. 겉보기에 맛있어 보여도 알고 보면 독이거나 영양가 없는 음식과 같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눈앞의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다가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전파해야 한다. 성경은 단단한 알곡들로 가득찬 복된 창고와 같다. 그 알곡들로 잘 지은 따끈한 쌀밥을 먹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가 약한 자들은 그 알곡으로 죽을 쑤어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저것 섞어서 무엇이 주재료인지도 모를 음식은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총회장 목사님은 늘 외치신다. “교회는 사상과 이념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다!”

이호은 사모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인천 예수중심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이찬우입니다. 10월 13일 유초등부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부터 같이 갈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친구들 데려갈 거라고 하자 엄마는 체육대회 식사 준비로 일찍 가야 해서 인원이 너무 많으면 함께 타고 갈 차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문득 학원 차량을 운행하시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며 너희가 온다면 내가 너희를 태우고 다녀올 큰 차를 빌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일단 두 명의 남자친구가 갈 수 있다 했고, 두 명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은 바로 허락한 반면 한 명은 차만 타면 멀미가 너무 심해 걱정되지만 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 친구들을 태워다 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절 보시고 엄마가 기도하며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마음이 바뀌게 하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으로 할아버지께 며칠간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계속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친구들 교회 데리고 가려는 건데 할아버지가 태워다 주심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날 차 좀 운전해주

세요.” 며칠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으로 할아버지께서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의 친구들은 주일날 할아버지의 차를 타고 편하게 교회에 가서 재미있게 운동회를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멀미를 걱정하던 친구는 당연히 멀미 느끼지 않고 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었다고 했고, 다음에 또 가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이 좀 멀어서 한 명도 못 갈까 봐 걱정했는데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었고, 가라고 허락해주신 친구 부모님이 계셨고, 차를 태워주신 할아버지가 계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이찬우

:: From Internet ::

고난

《내 책상 위에는 누에고치가 여러 개 있다. 고치에는 누에 나비가 나오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작은 구멍으로 큰 누에 나비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누에나비 한 마리가 작은 구멍에서 긴 시간 동안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 가엾은 나비를 도와주려고 누에고치를 가위로 오려 큰 구멍을 내 주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온 누에고치들

은 날개를 찢기는 고통을 당했으나 가위로 크게 구멍을 내준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퍼덕였다. 나는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구멍을 비집고 나온 나비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큰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는 날개를 푸드득 거리며 책상 위를 맴돌더니 얼마 후 지쳐서 쓰러졌다. 누에나비는 작은 구멍으로 나오며 애쓰는 동안 힘이 생기고 물기가 알맞게 말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랴.》 이것은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

는 글의 일부이다.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나비는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고통을 겪어야 몸의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아픈 만큼 성장한다. 우리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도, 기쁨도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

예수중심편집실

추계산상집회

11월 25일(월) ~ 28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 - 아침에 사과와 규칙적인 식사

작년부터인가 편의점에서 세척 사과라는 제품을 접하게 되었고, 자주 과일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세척된 사과를 종종 먹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과일을 세척할 시간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과일을 세척해서 깨끗하게 포장하여 어디에서나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의학에서 사과는 달고 서늘하고 독성이 없으며 비(脾), 위(胃), 심(心)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효능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답답함을 개선시키고, 술독을 해독시키며, 위장의 순환을 돕고, 폐에 진액을 보충해주며, 염증을 가라앉히고, 더위와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사과는 갈륨함량이 높아 육류나 짜게 먹어 생기는 과도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포만감을 갖게 해주어서 배고픈 것을 잘 견디게 해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강하, 담즙 분비 증가, 담결석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옥용단(玉容丹)이라고 하여 사과즙을 약간 불로 끓여 액체가 엷과 같이 걸쭉하게 되면 약간의 꿀을 넣어 냉장 보관하여 평소 복용을 하면 소화기능을 개선시키고 기운을 나게 하며,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여 기분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복통과 설사에도 사과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소화기가 약한 체질인 사람이 사과를 과량 복용하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라는 과일 주스가 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는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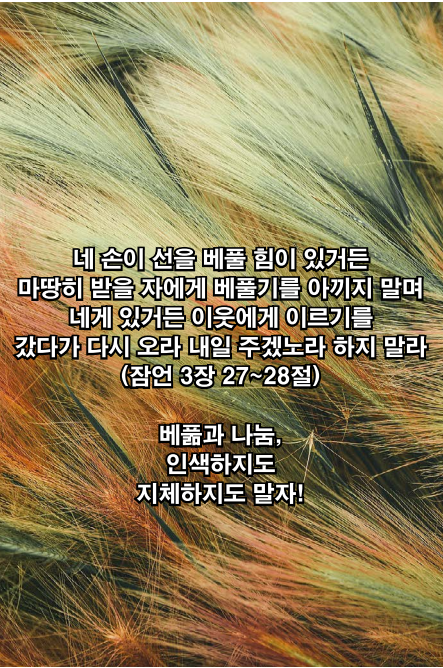
인들에게 아침에 꼭 먹는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한의학에서 비(脾)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는 비(脾)장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잘 먹지 않는 습관, 밤늦게 야식을 하는 습관, 쉼새 없이 먹는 습관 등이 비(脾)장에 안 좋은데, 아침에 사과 한 조각이라도 먹고 아침을 거르지 않는 습관을 실행해보면서 3개월 후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관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아침 식사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주스의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주간도 아침 한 끼 거르지 않고 든든하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Dr. 설재현 집사

하나님의 CCTV

1972년 캐나다, 한 신문기자가 일종의 미스터리 쇼퍼(신분을 숨긴 채 고객으로 위장해 매장의 서비스와 품질 체크)방식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전화플러그 연결선이 좀 느슨한 것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완벽한 상태의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정비소 13곳을 찾아갔다. 대부분의 정비사들은 멀쩡한 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딱 한 명, ‘세실 브랜튼’이라는 50대 후반의 정비사는 차에 느슨한 전화플러그 연결선만 조여 주고는 아무 이상 없으니 수리비도 요구하지 않고 가라 하였다. 놀란 기자는 자신이 손님으로 위장해 자동차 정비소를 취재 중이었다고 신분을 밝히고,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답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정직한 크리스천 정비사의 사연은 신문에 고스란히 실렸고, 그의 정비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33년 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토론토 스타> 신문에서는 그의 사망 소식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세실 브랜튼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크리스천 정비사 잡들다!’ 세실 브랜튼은 정직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귀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었다(마5:16). 그가 이렇게 정직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현재 세상의 모든 건물, 도로의 CCTV, 차량의 블랙박스는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CCTV’에는 무감각하다. 하나님의 CCTV는 고장도 없고, 사각지대도 없으며, 우리의 모습과 생각까지 모두 녹화한다.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CCTV도 설치해두시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정직하고 분명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세실 브랜튼처럼 정직하고 분명하여 심판의 날 하나님의 CCTV가 재생될 때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해보자!

송현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끄기를
값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잠언 3장 27~28절)

베룩과 나눔,
인색하지도
지체하지도 말자!